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통계로 보는 여성

- 2024년 여성의 노동 및 임금 현황
임연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24년 여성의 노동 및 임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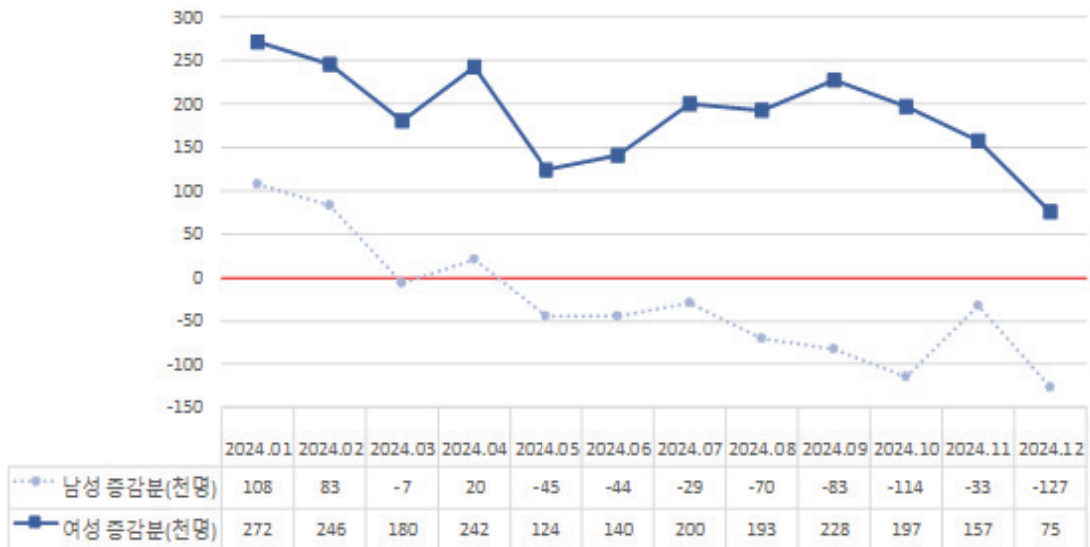
임연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2024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4%, 고용률은 54.7%로 전년 대비 각각 0.8%p, 0.6%p 상승함. 같은 기간 남성은 각각 0.4%p, 0.4%p 감소함. 여성의 취업 증가는 30대와 60대 이상 여성의 취업 증가에 기인하지만, 20대와 40대 여성의 취업자 규모 감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의 규모는 2024년 총 1,215천 명으로 15~54세 기혼 여성 중 15.9%에 해당함. 15~54세 기혼 여성이 2023년 대비 3.6% 감소한 것에 비해 경력 단절 여성은 같은 기간 9.9% 감소하였음. 경력 단절 사유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육아'는 2019년부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43.3%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낸 후 감소하여 2024년 41.1%를 기록함.
- (종사상 지위 및 근로형태별) 2024년 여성 임금근로자는 10,172천 명으로 1963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임. 상용근로자 역시 6,969천 명으로 최대 규모로, 여성 비율은 42.6%임. 여성 비정규직 규모는 2024년 8월 4,844천 명으로 여성 임금근로자의 47.3%를 차지함. 이는 전년 대비 1.8%p 증가한 수치로, 2023년까지의 감소세가 반전된 것임.
- (성별 직종분리) 던컨 지수를 상반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강화된 성별 직종분리 정도가 2023년 들어 완화되었으나 2024년 다시 분리 정도가 전년 대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임금 격차) 2024년 8월 기준 여성 시간당 평균 임금은 15,587원으로, 이는 남성의 73.9% 수준임. 세부적으로는 정규직(76.0%), 상용근로자(75.0%), 전일제 근로자(76.6%)에서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저임금근로자) 24세 이하 및 60세 이상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시사점) 향후 경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동시장 역시 그 영향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난 경제위기시 여성을 비롯한 고용 취약층에게 더 혹독한 영향이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선제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1. 여성 노동 참여 현황

□ 2024년의 연간 성장률의 전망치는 2.0%대(한국은행: 2.2%, KDI: 2.0%)이며 2025년에는 더 낮은 수치(한국은행: 1.9%, KDI: 1.6%)로 전망되어, 향후 경제 성장세의 약화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둔화될 것으로 예측됨(한국은행, 2024; KDI, 2025).

- (취업자 수 증감) 2024년 취업자를 성별로 나누어 전년 동월 대비 증감분을 살펴보면, 여성은 전년 동월 대비 매월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증가 폭이 9월 이후로 둔화되는 양상이며, 남성은 5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매월 감소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0R7024S, 2025.2.7. 인출)

[그림 1] 성별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분

- (연령별) 여성의 취업자 증가세는 30대와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에 기인하나, 연초부터 감소세였던 15~19세와 20대, 40대 여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노동시장 진입기에 해당하는 20대의 감소 폭이 매우 컸음. 월별로 살펴보면 5월에 감소 폭이 106천 명으로 고점을 찍고 8월 55천 명까지 둔화되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임. 20대와 40대 여성의 취업자 감소는 생애주기에 따라 그 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에 맞는 정책적 처방이 필요함.

〈표 1〉 전월 동월 대비 연령대별 여성 취업자 증감분

(단위: 천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성 전체	272	246	180	242	124	140	200	193	228	197	157	75
15~19세	-15	-14	-14	-2	-2	-13	-4	-9	-10	6	-9	-9
20~29세	-15	-24	-58	-67	-106	-76	-65	-55	-60	-80	-91	-97
30~39세	91	84	87	121	93	99	116	108	103	99	90	80
40~49세	2	-4	-3	-3	-27	-26	-43	-31	-16	-19	-37	-40
50~59세	31	32	39	11	2	-20	-8	-11	6	15	8	28
60세 이상	178	172	129	181	164	176	203	191	204	176	195	1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FA7024S, 2025.2.7. 인출)

- (노동시장 전반) 특히 작년에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으로 해당 산업에서의 고용이 감소했던 한편 보건복지업과 정보통신업에서의 점진적인 고용 증가가 있었음. 경제의 불안정성이 산업별 노동시장을 통하여 전파되므로 노동자의 인적 속성별로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이러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증가함. 이는 30대와 60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기인함.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2024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4%, 고용률은 54.7%로 전년 대비 각각 0.8%p, 0.6%p 상승함. 같은 기간 남성은 각각 -0.4%p, -0.4%p를 기록함.
- (실업률, 고용보조지표) 2024년 여성의 실업률은 2.9%이고, 고용보조지표1, 2, 3은 각각 5.7%, 6.4%, 9.2%로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1은 증가한 반면, 고용보조지표2, 3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취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혼인상태별) 여성의 경우 미혼은 기혼에 비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은 5.8%p, 고용률은 4.2%p 높게 나타남. 이는 전년보다 두 수치 모두 그 폭이 커진 것으로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가 미혼 여성에 비해 어려워졌을 것으로 보임.

〈표 2〉 성/혼인상태별 고용동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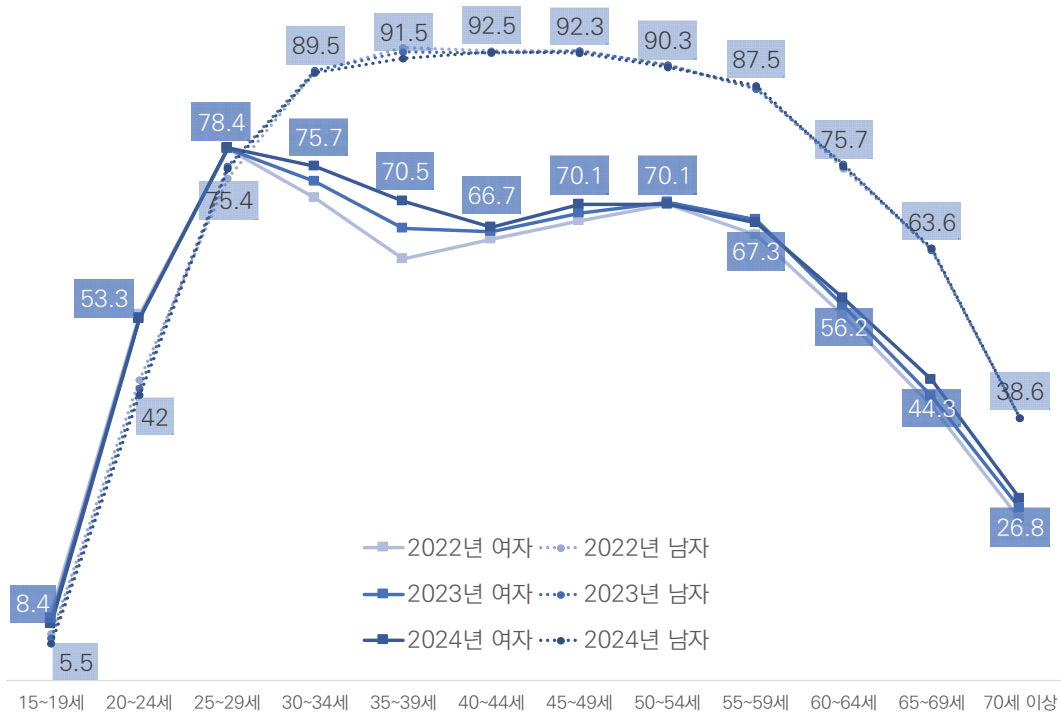
(단위: %, %p)

고용동향 지표	혼인 상태별	2022년			2023년			2024년		
		여성	남성	차이	여성	남성	차이	여성	남성	차이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54.6	73.5	18.9	55.6	73.3	17.7	56.4	72.9	16.5
	미혼	59.3	61.6	2.3	59.8	61.9	2.1	60.7	62.2	1.5
	기혼	53.0	79.7	26.7	54.2	79.2	25.0	54.9	78.5	23.6
고용률	전체	52.9	71.5	18.6	54.1	71.3	17.2	54.7	70.9	16.2
	미혼	56.0	58.4	2.4	57.2	58.8	1.6	57.9	59.2	1.3
	기혼	51.9	78.3	26.4	53.1	77.8	24.7	53.7	77	23.3
실업률	전체	3.1	2.7	-0.4	2.8	2.6	-0.2	2.9	2.8	-0.1
	미혼	5.6	5.2	-0.4	4.5	4.9	0.4	4.6	4.8	0.2
	기혼	2.1	1.7	-0.4	2.1	1.7	-0.4	2.2	1.9	-0.3
고용보조지표1	전체	6.2	5.4	-0.8	5.5	5.0	-0.5	5.7	5.2	-0.5
	미혼	9.1	7.9	-1.2	7.9	7.6	-0.3	7.9	7.8	-0.1
	기혼	5.1	4.5	-0.6	4.6	4.0	-0.6	4.9	4.2	-0.7
고용보조지표2	전체	8.4	7.5	-0.9	6.7	6.5	-0.2	6.4	6.2	-0.2
	미혼	14.0	14.2	0.2	10.9	12.1	1.2	9.8	11	1.2
	기혼	6.2	4.7	-1.5	5.2	4.1	-1.1	5.1	4.1	-1
고용보조지표3	전체	11.3	10.1	-1.2	9.4	8.8	-0.6	9.2	8.6	-0.6
	미혼	17.2	16.6	-0.6	14.0	14.5	0.5	12.9	13.8	0.9
	기혼	9.0	7.3	-1.7	7.6	6.3	-1.3	7.7	6.3	-1.4

주 : 차이는 남성 수치에서 여성 수치를 뺀 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01004_M2015003, 2025.2.7. 인출)

□ 경력 단절의 상징인 M자형 곡선의 최저점은 40~44세에서 나타남.

- 5세연령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4년 동안 35~3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작년에 이어 M자형 곡선의 최저점이 40~44세로 나타남. 경력 단절의 양상을 연령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60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향후 꾸준히 정책적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01004_M2015002, 2025.2.7. 인출)

[그림 2] 성/5세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최근 2년간 감소한 반면 남성은 같은 기간 증가하였음.

- (육아, 가사) 2024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상태가 육아인 여성은 729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2% 감소하였음. 같은 기간 남성은 14천 명으로 12.5% 감소하였음. 활동상태가 가사인 경우 여성은 5,793천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보임. 남성은 215천 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하였음.
- (취업 준비) 취업 준비(A+B)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 262천 명으로 전년에 대비해 10.3% 감소하였음. 같은 기간 남성은 4.9% 감소하여 365천 명이었음.
- (쉬었음)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쉬었음'의 규모와 비율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음.

〈표 3〉 성/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활동상태별	2022년			2023년			2024년		
	여성	남성	차이	여성	남성	차이	여성	남성	차이
계	10,442	5,897	-4,545	10,228	5,976	-4,252	10,088	6,084	-4,004
육아	984	12	-972	840	16	-824	729	14	-715
가사	5,778	187	-5,591	5,761	203	-5,558	5,793	215	-5,578
통학	1,598	1,719	121	1,589	1,739	150	1,560	1,714	154
정규교육기관 통학	1,459	1,595	136	1,464	1,614	150	1,436	1,569	133
입시학원 통학	30	23	-7	28	34	6	37	43	6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F)	108	102	-6	97	91	-6	87	102	15
연로	1,116	1,393	277	1,067	1,410	343	1,048	1,477	429
심신장애	140	305	165	150	324	174	148	320	172
그 외	827	2,281	1,454	822	2,284	1,462	810	2,344	1,534
취업 준비(B)	232	321	89	195	293	98	175	263	88
진학 준비	41	50	9	53	47	-6	58	43	-15
군 입대 대기	0	48	48	-	42	42	-	39	39
쉬었음	492	1,785	1,293	514	1,837	1,323	521	1,946	1,425
기타 등	62	78	16	60	66	6	56	53	-3
※ 취업 준비(F+B)	340	423	83	292	384	92	262	365	103

주 : 차이는 남성 수치에서 여성 수치를 뺀 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0R7145S, 2025.2.7. 인출)

-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25세부터 은퇴 시기인 64세까지를 대상으로 5세별로 구분하여 2024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를 살펴봄. 여성의 경우 25~29세의 비경제활동인구의 24.5%가 ‘쉬었음’이라고 응답하였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해당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5세연령/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활동상태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계(천명)	353	444	404	198	461	144	647	152	565	149	659	218	690	263	930	504
육아	(14.1)	-	(45.3)	(0.4)	(51.8)	(2.2)	(27.8)	(3.4)	(3.6)	(2.0)	(0.9)	(0.2)	(1.1)	(0.0)	(1.3)	(0.0)
가사	(10.7)	(0.4)	(23.7)	(1.8)	(32.9)	(2.3)	(62.8)	(5.9)	(84.3)	(8.9)	(90.6)	(12.1)	(93.4)	(8.1)	(92.1)	(6.6)
통학	(25.3)	(36.3)	(5.6)	(14.6)	(2.1)	(9.4)	(1.8)	(3.8)	(1.7)	(2.0)	(0.9)	(0.8)	(0.4)	(0.4)	(0.5)	(0.8)

활동상태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연로	-	-	-	-	-	-	-	-	-	-	-	-	-	-	(0.1)	(0.4)
심신장애	(2.9)	(3.7)	(0.8)	(4.8)	(0.9)	(11.0)	(0.6)	(17.0)	(2.4)	(13.1)	(1.6)	(12.6)	(1.5)	(15.8)	(0.9)	(9.9)
그 외	(47.0)	(59.6)	(24.7)	(78.4)	(12.3)	(75.0)	(7.1)	(69.8)	(8.0)	(74.0)	(6.0)	(74.4)	(3.7)	(75.6)	(5.1)	(82.3)
취업 준비	(19.4)	(27.9)	(6.2)	(26.7)	(1.7)	(12.2)	(0.6)	(6.2)	(0.6)	(3.5)	(0.2)	(3.0)	(0.2)	(1.4)	(0.1)	(0.4)
진학 준비	(2.3)	(1.4)	(0.7)	(0.7)	(0.1)	(0.1)	-	(0.1)	-	-	(0.0)	-	-	-	-	-
군 입대 대기	-	(0.3)	-	-	-	-	-	-	-	-	-	-	-	-	-	-
쉬었음	(24.5)	(29.3)	(17.5)	(49.4)	(9.7)	(61.9)	(6.0)	(62.2)	(7.1)	(69.2)	(5.1)	(68.4)	(2.9)	(71.3)	(4.2)	(80.6)
기타 등	(0.8)	(0.7)	(0.3)	(1.7)	(0.9)	(0.9)	(0.5)	(1.4)	(0.3)	(1.3)	(0.7)	(2.9)	(0.6)	(2.9)	(0.9)	(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 경력 단절 여성의 규모는 2024년 총 1,215천 명으로 15~54세 기혼 여성 중 15.9%에 해당함. 15~54세 기혼 여성이 2023년 대비 3.6% 감소한 것에 반해 경력 단절 여성은 같은 기간 9.9% 감소하였음.

- 경력 단절 사유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육아’는 2019년부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43.3%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낸 후 감소하여 2024년 41.1%를 기록함.
- 경력 단절 사유 중 ‘결혼’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임신 및 출산’은 2020년에 반등하여 이후 그 비율이 4년 연속 증가함. ‘자녀 교육’과 ‘가족 돌봄’은 2021년에 각각 3.8%, 3.4%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24년 각각 4.7%, 4.8%를 기록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의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15~29세에서는 기혼 여성, 미취업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2023년에 그 규모가 잠시 반등하였으나, 2024년 들어 예년의 감소 추이로 접어들.
- 30대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40대에서는 2023년에 잠시 반등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16.2%를 보임. 40대의 경력 단절 사유를 확인하면 2024년 ‘육아’의 비율이 41.8%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30대 역시 2024년 ‘육아’의 비율이 44.2%로 높게 나타나지만, 2020년 이후 추이를 비교해 보면 40대에서는 해당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30대에서는 하락하는 추이임.
- 50대에서는 2020년 이후로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50대에서 ‘육아’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2024년에는 31.3%를

차지하여 이는 47천 명에 해당함. 해당 연령이 노동시장 퇴장 연령과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도 있겠으나, 고령층의 노동 참여 욕구와 연관되어 비자발적인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표 5〉 연령대별 경력 단절 여성 규모 및 비율

(단위: 천 명, %)

연령대별	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5~54세)	기혼 여성(F)	9,561	9,376	9,159	9,005	8,844	8,578	8,323	8,103	7,943	7,654
	미취업 여성	3,863	3,727	3,574	3,457	3,366	3,420	3,240	3,027	2,837	2,601
	경력 단절 여성(B)	2,073	1,924	1,881	1,847	1,699	1,506	1,448	1,397	1,349	1,215
	경력 단절 여성 비율(B/F)	(21.7)	(20.5)	(20.0)	(20.5)	(19.2)	(17.6)	(17.4)	(17.2)	(17.0)	(15.9)
15~29세	기혼 여성(F)	506	482	458	447	419	354	311	266	294	264
	미취업 여성	275	258	235	227	209	185	154	115	121	108
	경력 단절 여성(B)	177	161	144	139	118	97	75	57	64	52
	경력 단절 여성 비율(B/F)	(35.0)	(33.4)	(31.4)	(31.1)	(28.2)	(27.4)	(24.1)	(21.4)	(21.8)	(19.7)
30~39세	기혼 여성(F)	2,909	2,848	2,753	2,690	2,601	2,448	2,298	2,161	2,072	1,962
	미취업 여성	1,465	1,391	1,293	1,207	1,149	1,101	1,048	952	836	716
	경력 단절 여성(B)	1,091	1,014	933	886	806	695	655	600	544	469
	경력 단절 여성 비율(B/F)	(37.5)	(35.6)	(33.9)	(32.9)	(31.0)	(28.4)	(28.5)	(27.8)	(26.3)	(23.9)
40~49세	기혼 여성(F)	4,060	4,017	3,939	3,878	3,776	3,708	3,621	3,559	3,475	3,364
	미취업 여성	1,413	1,390	1,380	1,373	1,349	1,393	1,352	1,302	1,227	1,148
	경력 단절 여성(B)	630	603	606	660	634	580	579	588	590	544
	경력 단절 여성 비율(B/F)	(15.5)	(15.0)	(15.4)	(17.0)	(16.8)	(15.6)	(16.0)	(16.5)	(17.0)	(16.2)
50~54세	기혼 여성(F)	2,087	2,029	2,009	1,991	2,048	2,068	2,092	2,116	2,103	2,063
	미취업 여성	711	688	666	650	659	741	686	658	652	630
	경력 단절 여성(B)	176	146	148	161	142	134	138	152	150	151
	경력 단절 여성 비율(B/F)	(8.4)	(7.2)	(7.4)	(8.1)	(6.9)	(6.5)	(6.6)	(7.2)	(7.1)	(7.3)

주 : 경력 단절 여성이란 15~54세 기혼 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미취업 여성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상반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H06S, 2025.2.7. 인출)

〈표 6〉 연령대별/사유별 경력 단절 여성 규모

(단위: 천 명, %)

연령대별	사유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5~54세)	경력 단절 여성	2,073	1,924	1,831	1,847	1,699	1,506	1,448	1,397	1,349	1,215
	- 결혼	(37.0)	(34.7)	(34.6)	(34.3)	(30.7)	(27.5)	(27.4)	(26.3)	(26.2)	(24.9)
	- 임신 및 출산	(24.3)	(26.2)	(24.8)	(24.1)	(22.6)	(21.3)	(22.1)	(22.7)	(23.0)	(24.4)
	- 육아	(29.8)	(30.1)	(32.0)	(33.5)	(38.2)	(42.5)	(43.3)	(42.8)	(42.0)	(41.1)
	- 자녀 교육	(3.9)	(4.2)	(4.2)	(3.8)	(4.1)	(4.1)	(3.8)	(3.6)	(4.4)	(4.7)
	- 가족 돌봄	(5.0)	(4.8)	(4.5)	(4.2)	(4.4)	(4.6)	(3.4)	(4.6)	(4.3)	(4.8)
15~29세	경력 단절 여성	177	161	144	139	118	97	75	57	64	52
	- 결혼	(38.4)	(37.7)	(36.1)	(33.5)	(33.6)	(28.0)	(32.5)	(30.9)	(29.5)	(28.3)
	- 임신 및 출산	(33.1)	(37.1)	(37.9)	(36.2)	(31.4)	(32.5)	(31.6)	(28.2)	(35.6)	(35.8)
	- 육아	(27.3)	(24.3)	(25.2)	(29.1)	(33.5)	(37.3)	(34.7)	(40.2)	(33.1)	(34.4)
	- 자녀 교육	(0.2)	(0.3)	(0.2)	(0.5)	(0.3)	(1.1)	(1.3)	-	(0.6)	(0.4)
	- 가족 돌봄	(0.7)	(0.7)	(0.8)	(0.5)	(1.4)	(0.8)	(0.3)	(0.5)	(1.1)	(1.5)
30~39세	경력 단절 여성	1,091	1,014	933	886	806	695	655	600	544	469
	- 결혼	(31.7)	(31.0)	(30.3)	(30.6)	(27.6)	(23.7)	(24.1)	(24.0)	(23.3)	(22.4)
	- 임신 및 출산	(28.8)	(30.7)	(29.5)	(27.6)	(26.9)	(24.0)	(25.4)	(26.3)	(27.4)	(29.4)
	- 육아	(35.5)	(34.7)	(36.5)	(38.5)	(42.0)	(48.5)	(47.6)	(47.4)	(45.3)	(44.2)
	- 자녀 교육	(2.7)	(2.7)	(2.7)	(2.4)	(2.3)	(2.6)	(2.2)	(1.5)	(2.9)	(2.7)
	- 가족 돌봄	(1.2)	(0.9)	(1.0)	(1.0)	(1.1)	(1.2)	(0.8)	(0.8)	(1.0)	(1.3)
40~49세	경력 단절 여성	630	603	606	660	634	580	579	588	590	544
	- 결혼	(42.6)	(37.5)	(37.9)	(36.5)	(31.7)	(29.9)	(28.3)	(26.5)	(26.0)	(24.8)
	- 임신 및 출산	(18.1)	(19.6)	(18.0)	(20.1)	(18.2)	(18.5)	(19.1)	(20.7)	(20.4)	(21.9)
	- 육아	(25.1)	(27.2)	(30.0)	(31.4)	(37.5)	(39.8)	(42.7)	(42.1)	(42.9)	(41.8)
	- 자녀 교육	(6.8)	(7.7)	(7.3)	(6.3)	(6.7)	(6.3)	(5.8)	(5.7)	(5.7)	(6.6)
	- 가족 돌봄	(7.3)	(8.0)	(6.8)	(5.7)	(5.8)	(5.5)	(4.1)	(5.1)	(4.9)	(4.9)
50~54세	경력 단절 여성	176	146	148	161	142	134	138	152	150	151
	- 결혼	(47.9)	(45.5)	(46.2)	(47.0)	(41.8)	(36.8)	(36.5)	(33.0)	(36.1)	(32.2)
	- 임신 및 출산	(10.1)	(10.9)	(10.0)	(10.8)	(10.3)	(11.3)	(14.2)	(14.6)	(12.0)	(14.0)
	- 육아	(13.9)	(15.8)	(18.4)	(18.3)	(22.8)	(26.7)	(29.8)	(28.0)	(30.5)	(31.3)
	- 자녀 교육	(4.7)	(4.4)	(4.5)	(4.4)	(5.2)	(4.4)	(4.8)	(5.2)	(6.5)	(5.8)
	- 가족 돌봄	(23.7)	(23.2)	(20.7)	(19.5)	(19.5)	(20.7)	(14.9)	(18.9)	(15.2)	(16.5)

주: 비율 수치는 저자가 직접 계산한 것으로 규모가 적은 15~29세의 경우 기공표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시 유의하여야 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상반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H07S, 2025.2.7. 인출)

2. 여성 취업자 현황

□ 여성 취업자 규모 및 여성 비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 (임금근로자) 여성 임금근로자의 규모와 비율은 최근 2년 연속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임. 상용근로자는 2024년 6,969천 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42.6%이며, 임시근로자는 2,925천 명으로 전체 임시근로자의 61.3%로 작년에 대비해 0.6%p 증가하였음. 한편 일용근로자는 278천 명으로 작년에 대비해 42천 명이 감소하였음. 일용근로자는 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종사자로 2024년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이들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비임금근로자)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2024년에 2,480천 명으로, 전년에 대비해 소폭 감소하였음. 이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 폭이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증가 폭에 비해 더 컸기 때문임.

〈표 7〉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단위: 천 명, %)

종사상 지위별		2022년		2023년		2024년	
		여성	여성 비율	여성	여성 비율	여성	여성 비율
취업자 전체		12,161	(43.3)	12,464	(43.9)	12,652	(44.3)
임금근로자	전체	9,694	(45.1)	9,976	(45.7)	10,172	(46.1)
	상용근로자	6,523	(41.6)	6,853	(42.4)	6,969	(42.6)
	임시근로자	2,848	(60.9)	2,803	(60.7)	2,925	(61.3)
	일용근로자	323	(28.5)	320	(30.7)	278	(30.2)
비임금근로자	전체	2,467	(37.4)	2,488	(37.8)	2,480	(38.0)
	고용주	387	(28.4)	394	(27.7)	399	(27.9)
	자영업자	1,272	(29.8)	1,317	(30.9)	1,334	(31.6)
	무급가족종사자	807	(84.5)	777	(86.4)	748	(85.4)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0A7028S, 2025.2.7. 인출)

□ 여성 비정규직 규모는 2024년 8월 4,844천 명으로 여성 임금근로자의 47.3%를 차지함. 이는 전년에 대비해 1.8%p 증가한 수치로, 2023년까지의 감소세가 반전된 것임.

- (정규직) 2024년 여성 정규직의 규모는 5,392천 명으로 정규직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9.4%임. 규모와 비율이 작년에 대비해 모두 감소하였음.

- (비정규직) 2024년 비정규직의 규모는 4,844천 명으로 비정규직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7.3%로 나타나 규모와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음. 한시적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는 전년 대비 각각 248천 명, 285천 명 증가한 한편 비전형 일자리는 28천 명 감소하였음. 이는 비전형 근로자 중 일일 근로자가 전년과 대비해 33천 명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임.

〈표 8〉 근로형태별 여성 취업자

(단위: 천 명, %)

근로형태별	2022년 8월		2023년 8월		2024년 8월	
	여성	여성 비율	여성	여성 비율	여성	여성 비율
임금근로자	9,788	(45.1)	10,027	(45.7)	10,235	(46.2)
정규직	5,285	(39.0)	5,462	(39.5)	5,392	(39.4)
비정규직	4,503	(55.2)	4,565	(56.2)	4,844	(57.3)
한시적	2,980	(55.7)	2,910	(55.3)	3,158	(56.1)
시간제	2,562	(69.5)	2,731	(70.5)	3,016	(70.9)
비전형	922	(43.3)	866	(44.3)	838	(44.0)
파견	101	(53.4)	114	(51.6)	113	(47.7)
용역	242	(42.7)	229	(42.9)	242	(44.7)
특수형태	355	(63.3)	343	(62.0)	331	(57.5)
일일	174	(21.4)	158	(23.8)	125	(21.9)
가정 내	83	(87.4)	51	(70.8)	49	(77.8)
비정규직 비율	(46.0)	-	(45.5)	-	(47.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106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71S, 2025.2.7. 인출)

□ 던컨 지수¹⁾를 상반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강화된 성별 직종분리 정도가 2023년 들어 완화되었으나 2024년 다시 분리 정도가 전년에 대비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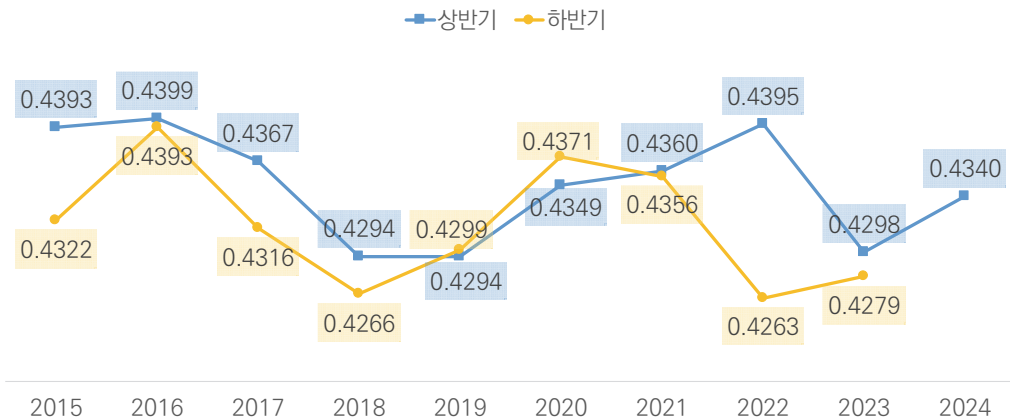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던컨 지수가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22년 하반기(0.4263)였고,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6년 상반기(0.4399)로 해당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1) Duncan 지수는 성별 직종분리를 나타내는 지수로, 특정 시점 t에서 성별 집단별로 개별 직종 j의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직종에 따른 성별 차이를 합산하고 이를 2로 나누어 산출한다(사명철, 2015: 10). 이는 여성과 남성의 직종별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각 반기별 자료에서 직종 분류 중 중분류를 활용하여 계산했다.

$$S_t = \frac{1}{2} \sum_j \left| \frac{M_{jt}}{M_t} - \frac{F_{jt}}{F_t} \right| \times 100$$

확인할 수 있음.

- 직업 중분류는 직종이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산업적 분류도 반영됨. 즉 노동시장의 직업과 산업의 분리가 동시에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별 전공 분리의 완화 및 여성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정책 강화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반기 자료에서 직업 중분류를 활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B325, 2025.2.7. 인출)

[그림 3] 던컨 지수

□ 2024년 여성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며, 그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여성 취업자 규모가 2,405천 명으로 가장 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1.8%로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8.7%)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 비율이 높음. 규모는 최근 2년간 증가하였음.
-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여성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산업으로, 2024년에는 전년에 대비해 규모가 증가하여 1,278천 명의 여성이 종사하였으며, 여성 비율 역시 전년에 대비해 증가하여 67.3%를 보임.
-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22년 이후 여성 취업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여 2024년 1,422천 명으로 해당 업종에서 여성 취업자 비율은 61.2%임.
- (제조업) 제조업은 취업자 규모가 가장 큰 산업으로 2024년 여성은 1,247천 명으로 전년에 대비해 44천 명 감소하였음. 여성 비율은 같은 기간 0.9%p 감소하여 28.0%임.

〈표 9〉 산업별 여성 취업자 현황

(단위: 천 명, %)

산업별	2022년		2023년		2024년	
	여성	여성 비율	여성	여성 비율	여성	여성 비율
계	12,161	(43.3)	12,464	(43.9)	12,652	(44.3)
A 농업, 임업 및 어업	594	(38.9)	592	(39.1)	595	(40.1)
B 광업	1	(11.1)	1	(12.5)	2	(25.0)
C 제조업	1,290	(28.6)	1,291	(28.9)	1,247	(28.0)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	(20.0)	17	(19.1)	14	(15.2)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7	(17.5)	23	(15.6)	24	(16.9)
F 건설업	236	(11.1)	257	(12.2)	259	(12.5)
G 도매 및 소매업	1,545	(46.6)	1,584	(48.4)	1,548	(48.1)
H 운수 및 창고업	202	(12.2)	187	(11.4)	208	(12.2)
I 숙박 및 음식점업	1,333	(61.1)	1,384	(60.3)	1,422	(61.2)
J 정보통신업	325	(33.1)	349	(33.7)	389	(35.1)
K 금융 및 보험업	429	(55.4)	434	(55.5)	449	(56.4)
L 부동산업	213	(38.6)	216	(40.4)	213	(41.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82	(37.4)	504	(37.1)	534	(37.6)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06	(42.6)	595	(41.6)	576	(41.8)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16	(42.5)	544	(43.9)	601	(47.0)
P 교육서비스업	1,276	(67.1)	1,266	(66.8)	1,278	(67.3)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29	(82.1)	2,348	(82.2)	2,405	(81.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3	(48.3)	255	(49.8)	259	(49.6)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28	(47.2)	539	(47.7)	548	(48.5)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78	(97.5)	76	(98.7)	78	(98.7)
U 국제 및 외국 기관	2	(12.5)	4	(23.5)	3	(2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01R7E26S, 2025.2.7. 인출)

3. 여성 근로자 임금수준 및 임금 성비

- 2024년 8월 기준 여성 시간당 평균 임금은 15,587원으로, 이는 남성의 73.9% 수준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꾸준히 증가하는 동시에 남녀간 임금 격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정규직 여부별) 여성 정규직은 17,630원, 비정규직은 13,312원으로 정규직(76.0%)이 비정규직(81.7%)에 비해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종사상 지위별) 여성 상용근로자는 17,306원, 임시근로자는 12,071원, 일용근로자는 10,614원으로 상용근로자(75.0%)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일용근로자(77.5%), 임시근로자(86.0%) 순으로 크게 나타남. 한편 일용근로자는 다른 종사상 지위와 다르게 전년에 대비해 시간당 임금이 소폭 하락한 값이었음.
 - (전일제 여부별) 여성 전일제 근로자는 16,811원, 시간제근로자는 12,656원으로, 전일제 근로자(76.6%)에서 시간제근로자(90.9%)에 비해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표 10〉 근로조건별 여성 근로자 시간당 임금 및 임금 성비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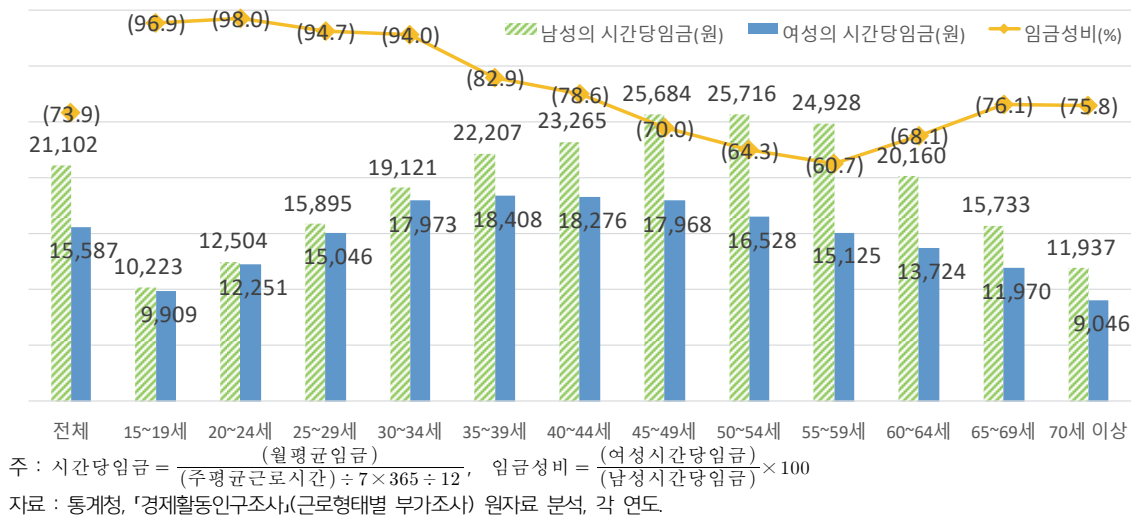
		2022년 8월		2023년 8월		2024년 8월	
		여성	임금 성비	여성	임금 성비	여성	임금 성비
전체		14,012	(72.6)	14,822	(73.7)	15,587	(73.9)
정규직 여부	정규직	15,819	(74.1)	16,660	(75.4)	17,630	(76.0)
	비정규직	11,890	(81.1)	12,624	(81.6)	13,312	(81.7)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5,595	(73.5)	16,415	(74.8)	17,306	(75.0)
	임시근로자	10,925	(85.2)	11,451	(85.6)	12,071	(86.0)
	일용근로자	8,872	(67.3)	10,919	(78.9)	10,614	(77.5)
전일제 여부	전일제	15,024	(75.3)	15,914	(76.6)	16,811	(76.6)
	시간제	11,155	(86.1)	11,907	(84.8)	12,656	(90.9)

주 : 시간당임금 = $\frac{(\text{월평균임금})}{(\text{주평균근로시간}) \div 7 \times 365 \div 12}$, 임금성비 = $\frac{(\text{여성시간당임금})}{(\text{남성시간당임금})} \times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 연령별 여성 근로자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35~39세에서 18,408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였는데, 이는 2023년에는 40~44세에서 가장 높은 시간당 임금을 보였다는 점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시간당 임금수준) 35~39세까지 시간당 임금은 꾸준히 오르는 한편, 40~44세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70대 이상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 (시간당 임금 성비) 한편 임금 성비는 20~24세에서 98.0%로 남성과 가장 비슷한 임금을 받음. 연령이 증가하면서 55~59세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60.7%로 가장 임금 차이가 컸음. 이후 반등하여 60~64세부터 다시 증가하지만 크게 개선되지는 않음.
- (남성과 비교) 남성은 50~54세에 가장 높은 시간당 임금(25,716원)을 기록하며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 4] 연령별/성별 시간당 임금 및 임금 성비

□ 산업별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대거 포진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작년 대비 4.4% 상승하였으나 이는 전체 상승률인 5.2%에 못 미치는 수준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여성이 가장 많이 일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024년 14,272원이며, 임금 성비는 81.3%로 남녀 임금 격차는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임금수준이 다른 산업보다 낮음.
- (제조업) 임금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산업은 제조업으로, 2024년 임금 성비는 68.0%로 가장 낮으며, 여성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15,956원임.

〈표 11〉 산업별 여성 근로자 시간당 임금 및 임금 성비

(단위: 원, %)

산업별	2022년 8월		2023년 8월		2024년 8월	
	여성	임금 성비	여성	임금 성비	여성	임금 성비
전체	14,012	(72.6)	14,822	(73.7)	15,587	(73.9)
A 농업, 임업 및 어업	9,199	(69.0)	9,835	(68.6)	11,654	(86.9)
B 광업	23,014	(128.3)	28,422	(150.8)	21,931	(107.8)
C 제조업	14,275	(68.1)	15,057	(68.2)	15,956	(68.0)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8,041	(61.0)	19,016	(67.8)	23,311	(79.0)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6,667	(96.2)	17,084	(91.3)	15,625	(77.4)
F 건설업	15,187	(84.9)	16,680	(90.2)	17,085	(85.9)
G 도매 및 소매업	12,960	(76.0)	13,954	(76.9)	14,478	(75.2)
H 운수 및 창고업	14,351	(84.5)	16,413	(94.1)	17,634	(94.4)
I 숙박 및 음식점업	10,411	(86.0)	11,072	(84.4)	11,330	(88.2)
J 정보통신업	17,143	(71.5)	18,648	(74.5)	20,368	(76.3)
K 금융 및 보험업	19,293	(68.0)	20,099	(69.8)	22,224	(73.2)
L 부동산업	12,823	(78.7)	13,250	(79.4)	14,311	(83.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222	(68.6)	18,607	(67.3)	19,377	(7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913	(81.2)	13,028	(83.8)	13,198	(85.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831	(73.7)	15,497	(74.6)	16,036	(75.9)
P 교육서비스업	17,127	(75.6)	18,034	(79.7)	18,707	(81.9)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854	(81.4)	13,672	(82.2)	14,272	(81.3)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2,771	(86.2)	13,658	(82.9)	15,584	(91.7)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096	(83.8)	12,049	(80.4)	13,115	(87.0)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287	(80.7)	9,112	(132.0)	9,788	(89.2)
U 국제 및 외국 기관	-	-	15,764	(75.9)	23,014	(111.0)

주 : 시간당임금 = $\frac{(\text{월평균임금})}{(\text{주평균근로시간}) \div 7 \times 365 \div 12}$, 임금성비 = $\frac{(\text{여성시간당임금})}{(\text{남성시간당임금})} \times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 2024년 여성 저임금근로자 규모는 1,956천 명으로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 중 19.1%임. 이는 전년에 대비해 49천 명 증가한 것임. 이는 55~59세(31천 명) 및 70세 이상(29천 명)에서의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임. 한편 남성 저임금근로자 규모도 25천 명 증가한 1,197명임.

- (연령별)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72.7%), 15~19세(60.6%), 65~69세(38.1%), 20~24세(34.7%) 순으로 주로 고령층 및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편임. 이들 집단 중 20~24세는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그 비율이 증가하였음.

- (남성과 비교) 남성과 비교하면 여성은 전반적으로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
는 편이며, 특히 노동 참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연령대인 30대부터 50대에서 차
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2〉 성/연령별 저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율

(단위: 천 명, %)

연령별	2022년				2023년				2024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전체	2,230	(22.8)	1,409	(11.8)	1,907	(19.0)	1,172	(9.8)	1,956	(19.1)	1,197	(10.1)
15~19세	72	(64.7)	38	(52.7)	64	(64.3)	40	(53.4)	56	(60.6)	42	(63.0)
20~24세	237	(33.4)	183	(35.6)	216	(31.3)	152	(31.3)	220	(34.7)	160	(35.4)
25~29세	126	(10.8)	157	(13.0)	91	(8.0)	129	(10.6)	99	(8.7)	129	(11.0)
30~34세	87	(8.9)	64	(4.8)	68	(6.5)	61	(4.4)	65	(6.0)	66	(4.6)
35~39세	102	(11.9)	57	(4.4)	60	(7.0)	41	(3.3)	64	(6.9)	42	(3.2)
40~44세	128	(12.5)	53	(3.6)	112	(10.6)	45	(3.0)	118	(11.5)	52	(3.4)
45~49세	142	(13.4)	62	(4.4)	111	(10.5)	54	(4.0)	109	(10.4)	45	(3.5)
50~54세	234	(19.5)	85	(5.7)	166	(13.8)	68	(4.6)	147	(12.2)	55	(3.8)
55~59세	205	(21.1)	111	(9.2)	152	(14.9)	79	(6.5)	183	(17.4)	78	(6.3)
60~64세	257	(35.0)	159	(17.7)	210	(26.3)	110	(11.7)	201	(24.4)	100	(10.8)
65~69세	209	(51.1)	148	(28.9)	193	(43.3)	122	(23.8)	201	(38.1)	133	(23.6)
70세 이상	431	(76.7)	291	(62.7)	465	(75.1)	272	(54.8)	494	(72.7)	295	(58.0)

주 : 저임금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 임금의 2/3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https://g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XD9011 2025.2.7. 인출)

□ 향후 경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동시장 역시 그 영향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난 경제위기 시 여성을 비롯한 고용 취약층에
게 더 혹독한 영향이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선제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참고문헌 •

사명철(2015).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의 변화. 노동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은행(2024). 경제전망보고서(2024년 11월).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9/view.do?nttlId=10088282&searchCnd=1&searchKwd=&depth2=200699&depth3=200066&depth=200066&pageUnit=10&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0066&oldMenuNo=200066>, 2025.2.11. 인출
KDI(2005). 2025년 2월 KDI 경제전망. https://www.kdi.re.kr/research/economy?pub_no=18617, 2025.2.11. 인출